

# 연구개발 주력으로 경쟁력 획득

- 천연물질 이용한 치료제 개발 중점 -

**동**물약품 업체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역량에 집중해 몇 년 사이 국내 동물약품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10년간의 준비기간 끝에 3년 전부터 본격적인 수출사업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국내외 영향력 있는 동물약품 업체로 거듭날 (주)삼양애니팜 민필호 대표를 만나 국내 사업 분야와 해외 진출에 대한 방향을 들어보았다.



▲ 삼양애니팜 민필호 대표이사

## 33년의 전통

1975년 설립된 (주)삼양애니팜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온 중견 기업이다.

양돈, 낙농, 양계, 양어 등 전 축종을 대상으로 사료첨가제, 영양보조제, 소독제 등 제품 연구와 150여종의 생산으로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업체 중 하나이다.

이중에는 30년 가까이 장수하며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들도 많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명성을 쌓기까지는 끊임없는 기술축적과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 생산에 있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밝힌다.

현재 사무실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해 있고, 포천공장과 연구센터를 두고 자체 연구노력으로

국내외 우수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천연물질 이용한 치료제’ 생산 주력

축산업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최근 AI 발생에 따라 실제로 동물약품업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환율 상승과 과당경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2008년 AI가 발생한 이 시점에서 하락한 소비는 양계업계 전체의 위기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또한 최근 사료비, 유류대의 급등으로 생산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FTA, DDA 등 국제적인 무역의 변화로 양계산물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축산물 생산이 집중되는 가운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이 대두되면서 (주)삼양애니팜은 주력 제품으로 천연물질을 이용한 항생제 대체제 제품개발에 역량을 다할 것이라 밝힌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을 추출해 만든 ‘만양’이라는 약품이 있다. 강장제 효과로 익히 알려져 있는 마늘을 이용해 여름 폭한기에 더위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항병, 성장, 발육촉진에 효능이 있다고 전한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주)삼양애니팜 사무실

‘만양’은 (주)삼양애니팜의 1호 제품으로 첫 출시 당시 양계농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판매량을 보이는 제품 중에 하나이다.

또한 갑각류의 껍질에서 추출한 키토산(chitosan) 성분의 영양제·면역증강제(키토날산·액)는 면역력 증강과 성장촉진, 스트레스 방지에



▲(주)삼양애니팜은 중소기업청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기도 했다.



효과가 있는 사료첨가용 제품으로 양계 접종 시 스트레스 예방, 산란율·부화율 향상, 연란·파란방지, 설사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한편 양계 사료에서 부족하기 쉬운 기초 비타민제인 ‘비타그로우 수용산’과 ‘비타그로우M 수용산(광물질첨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왔고, 근래에는 천연물질인 키토올리고당과 비타민제를 혼합한 제품인 ‘키토비타’를 출시해 두 제품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소비자의 호응을 받고 있다.

동사는 현재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천연물질,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병원성 천연물질을 이용한 제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제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 실험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진 오랜 기간을 요하지만, 축산업계와 동반자의 입장에서 천연물질을 이용한 제품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한다.

이렇게 앞으로 무항생제 생산을 위한 항생제 대체제 제품 생산으로 집중해 연구·개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 홍보실에 전시되어 있는 삼양애니팜 제품들

## 동남·서남아 해외진출

삼양애니팜은 외국제품의 수입보다는 자체 연구 노력으로 국내외 우수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이슬람 문화권은 앞으로 양계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는 국가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태국 등 총 8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필홍 대표는 “3년 전부터 시행해 초기단계이지만, 그 외 10여개 업체와 접촉하면서 어려운 축산 경기로 인해 내수시장이 위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유일한 돌파구는 해외 진출을 통한 활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한다.

동사는 작년의 경우 국내외 총 연 매출액 80억 원을 달성했고, 그 중 작년 한해에 수출한 물량이 올 1/4분기 안에 달성되면서 수출부분에서 3~5년 안에 연 판매액 100만 불을 목표를 꺾는다.

앞으로 소독제, 영양제 등 기본적인 제품부터 항생제, 살충제 등 다양한 품목 진출을 꾀하고 있다.

## 제품개발에 집중

삼양애니팜은 국내 축산업 환경이 열악했다. 1975년에 창립되어 대내외적인 악재속에서도 꾸준히 공장과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품질개선에 노력해 왔다.

‘고객경영, 품질경영, 기술개발경영’의 경영이념 아래 주력하는 분야는 ‘제품개발’이다. 지

난 2006년에 포천에 위치한 제1공장설비 분야에 전격 투자해 국내 업계에서는 최초로 전 자동화설비(주사제)를 실시하면서 주사제(양돈)분야에서는 업계 생산량 1위를 자랑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자체개발 연구소를 두어 인증을 받기도 했으며 인력강화로 집중적으로 제품개발 향상에 중점을 두어 항생제 대체제에 역점해 개발투자하고 있다.

민 사장은 “차별화된 제품 생산으로 품질 향상에 우선권을 두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무항생제 제품 생산 기대에 부응해 천연물질(항생제 대체제) 개발에 주력해 타사와의 경쟁력 획득에 주력할 것” 포부를 전했다.

## 인하단결의 힘은 곧 업무의 효율성

삼양애니팜은 내부적으로 인하단결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직원들의 화합으로 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는 직원들로, 55명의 전 직원과 함께 직원 단결자리를 가져 생산능력 향상과 매출확대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민필홍 사장의 마인드이다.

그렇듯 매년 한두 차례 전 직원 단합대회로 직원들의 사기 충진을 갖는 기회를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전한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